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9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03 / 옥산서원

위성사진 / 평면도 / 단면도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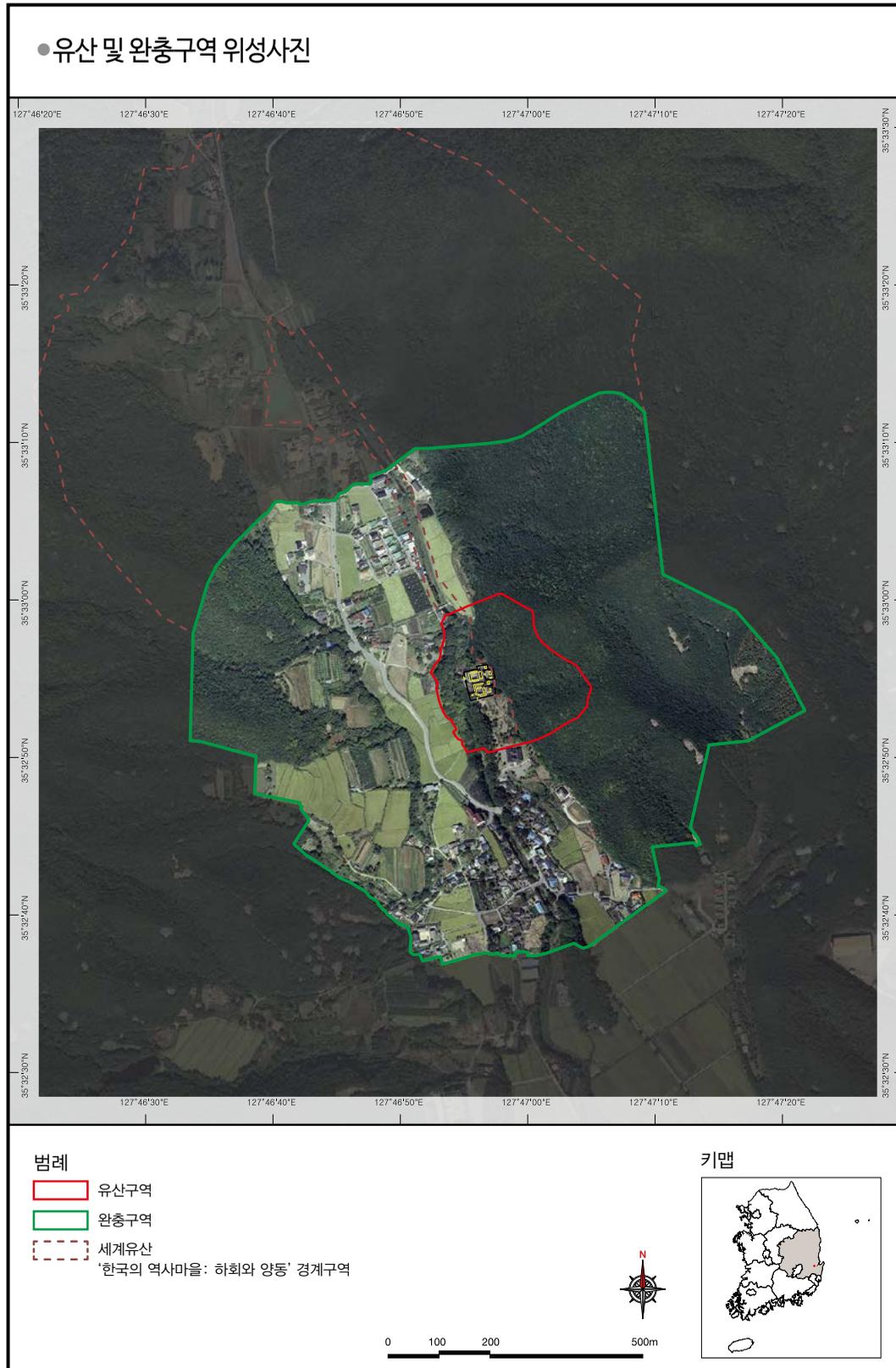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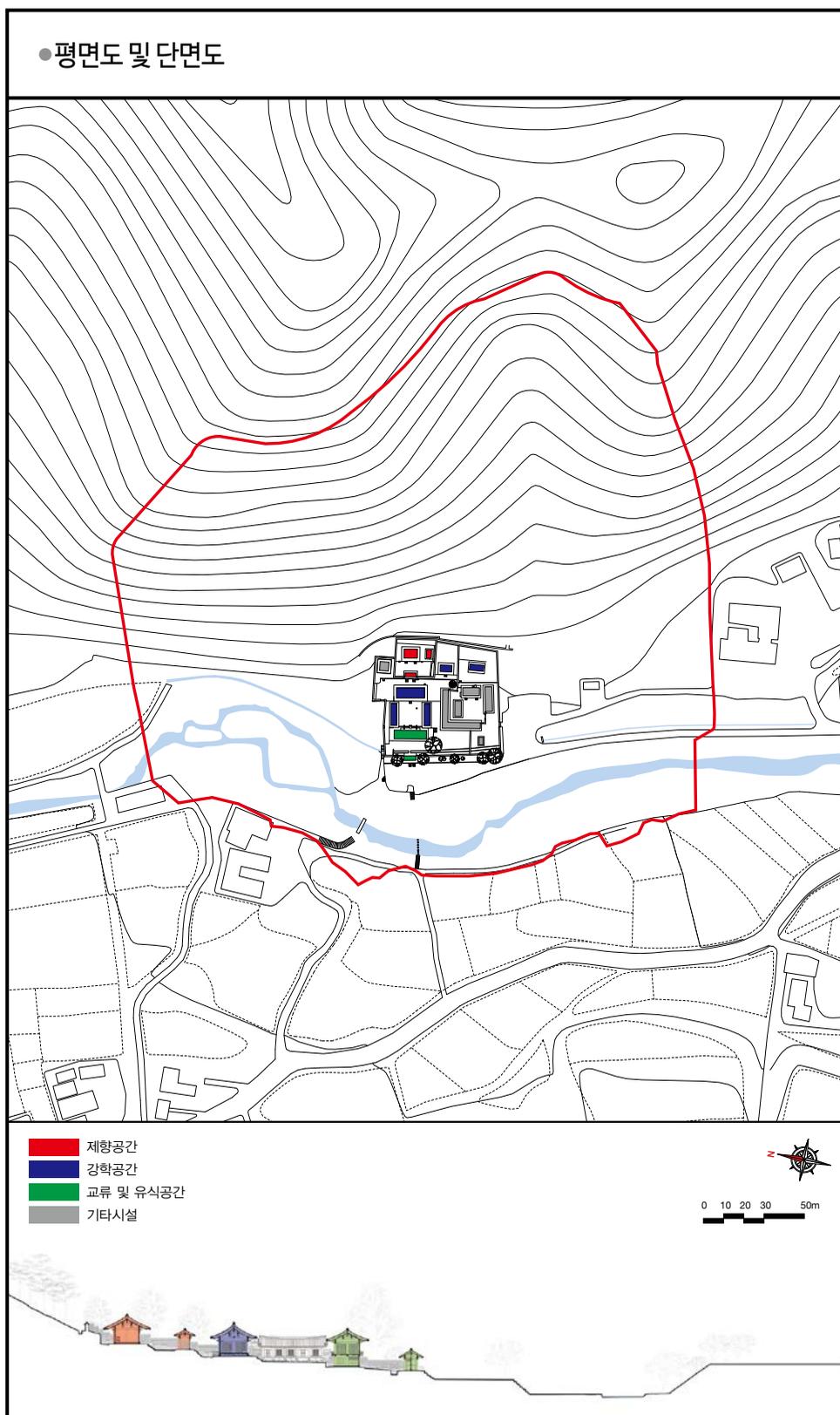
제향공간 / 강학공간 / 교류영역 및 유식공간 / 기타

기록유산, 무형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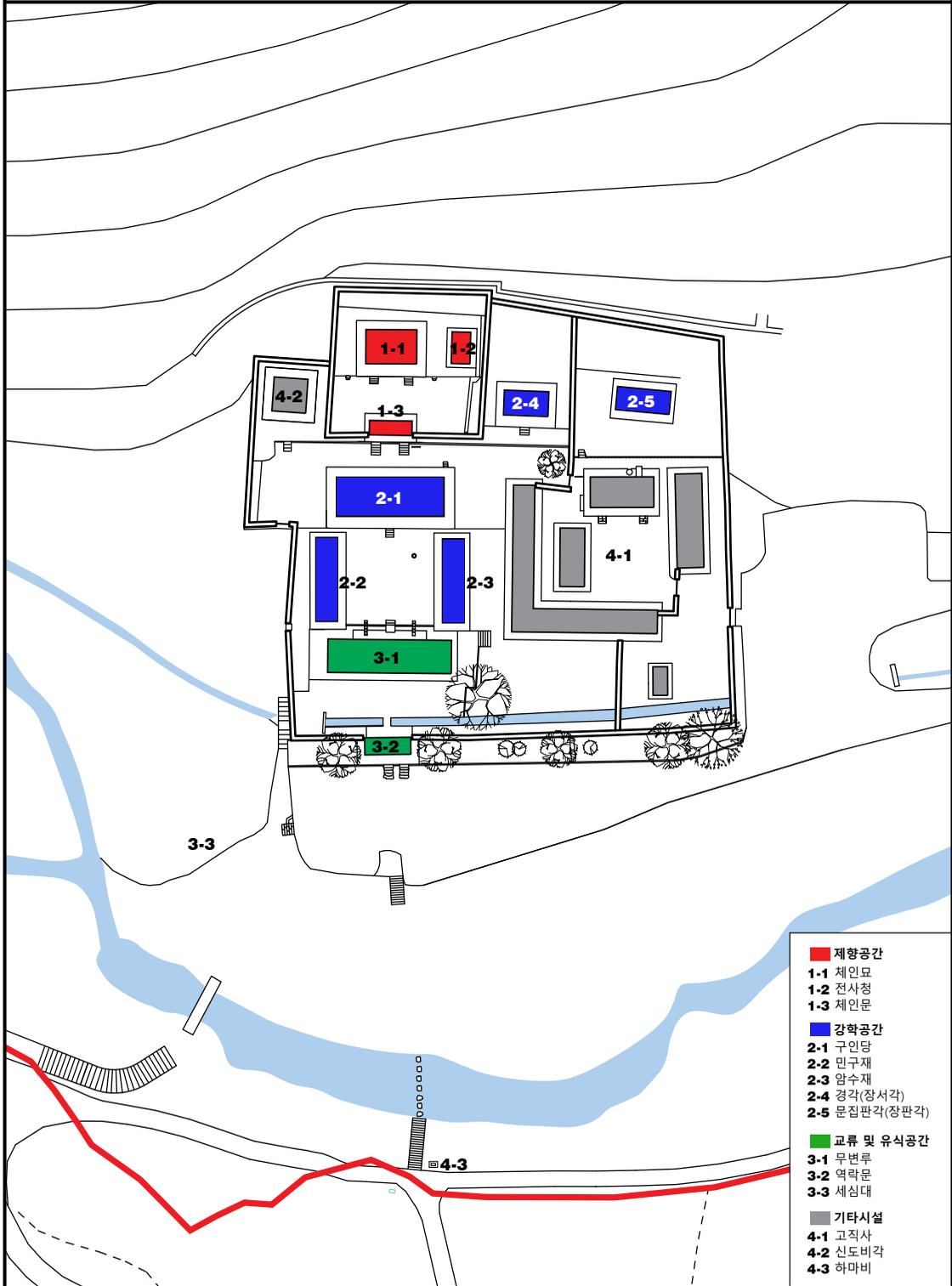
고문서 / 책 및 책판 / 현판 및 기문 / 제향의례

3. 옥산서원





● 배치도



1) 건축물

제향공간



1-1

1-2

1-3

체인묘(1-1)

회재 이언적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1572년(선조 5) 건립, 1905년 중수되었다. 최근에는 1992년에 보수하였다. 체인묘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지붕 옆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하고 있는 맞배집이다.

전사청(1-2)

제향과 관련된 제기가 보관되어 있으며, 제향준비를 위한 건물이다.

체인문(1-3)

제향공간의 진입문이다.

강학공간



- | | |
|-----|-----|
| 2-1 | 2-2 |
| 2-3 | 2-4 |
| 2-5 | |

강당 : 구인당(2-1)

1839년(헌종 5)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840년(헌종 6) 중수되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서원 강학활동의 핵심 건축물이다. 남계서원을 계승하여 좌우로 원장과 원임의 개인 연구실과 가운데 누마루로 구성된 학생의 강학을 위한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봉 한호, 추사 김정희 등 조선시대 명필가들이 남긴 현판 작품이 걸려있다.

재사 : 민구재(2-2), 암수재(2-3)

건물들에서 학생들은 기숙과 개인 학습을 병행하였다. 남계서원의 배치방식을 계승하여 강당의 좌우에 위치하고 있다. 민구재는 동재(東齋), 암수재는 서재(西齋)에 해당한다. 모양은 정면 5칸, 측면 1칸의 “-”자형 평면이며, 평면구성은 좌측부터 마루 1칸, 방 2칸, 마루 1칸, 방 1칸으로 되어 있다. 암수재는 전면에 쪽마루를 달았다.

도서관 : 경각(2-4)

서원의 강학활동과 관련된 교재, 성적표 등이 보관된 곳이다. 원래 어서각(御書閣)이라 했으나, 1972년 청분각을 지으면서 이전하였다가 현재는 2010년에 신축한 옥산서원 유물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삼량가의 맞배지붕이고, 좌향은 서향이며,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고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다.

도서관 : 문집판각(2-5)

서원에서 만든 목판이 보관된 곳이다. 이곳에 보관된 목판은 현재 보존관리를 위해 옥산서원 유물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삼량가의 맞배지붕으로 기둥가구는 민도리식으로 결구되어 있다

교류영역 및 유식공간



3-1

3-2

3-3

무변루(3-1)

서원 내외부 사림들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기능을 한 목적에서 건립된 누마루이다. 한국 서원 중 최초로 건립된 누마루 형태이다. 무변루의 당호는 무변풍월(無邊風月)에서 따온 것으로 정면 7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이다. 석봉 한호가 쓴 편액이 정면 앞이 아니라 2층 대청 안쪽 벽 위에 걸려 있는 점이 특이하다.

역락문(3-2)

서원의 외삼문으로 앞에는 자계천이 흐르고 안으로 들어서면 작은 내를 건너도록 된 진입문이다. 이를 통해 서원의 주요 건축물과 외부를 구분한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이고, 좌향은 서향이다.

세심대(3-3)

서원 건축물의 남서부에서 계곡을 바라보는 곳에 있는 석각이다. '마음을 씻는다'라는 성리학적 개념이 석각되어 있다.

기 타



4-1

4-2

4-3

고직사(4-1)

조선시대 서원의 보존관리와 운영의 보조업무를 하던 사람들이 기거하던 건물이다. 현재에도 사람이 기거하며 서원을 관리하고 있다.

신도비각(4-2)

제향인물 이언적의 생애와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신도 비각이다.

하마비(4-3)

서원의 입구에 세워져 있다. 이 구역부터 방문자들은 말이나 가마에 내려 서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2) 기록유산·무형유산

| 고문서 |



심원록(천) 尋院錄(天)

▪년대: 1573~1583년 ▪크기: 33.3×22.5

1573년(선조 6)부터 10여 년간 옥산서원을 내방한 지방관과 다음 소속 유생 등 총 168명이 자필 서명한 방명록이다. 기재순서는 직위(본관), 인명, 거주지, 내방일 순으로 되어 있다. 옥산서원 심원록은 20세기 초까지 총 103책이 현존한다. 그리고 이외에 본향심원록(本鄉尋院錄)이라 하여 경주부내 인사들의 방문록을 1756년(영조 32)부터 별도로 작성하여 총 48책이 전한다.



만력6년 옥산서원 관노비안 萬曆六年 玉山書院 官奴婢案

▪년대: 1578년(선조 11) ▪크기: 33.3×22.5

1578년(선조 11) 4월 경주부에서 받은 관노비들의 명단이다. 고직(庫直), 도척(刀尺), 반모(飯母) 각 1구와 속공노비(屬公奴婢) (노 3, 비 11구) 14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옥산서원 건립 초기 노비의 규모를 알려주는 자료로서 지방관의 협조가 서원경제에 큰 부분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정서등록 문書臚錄

▪년대: 1588~1683년 ▪크기: 22.2×28

1588년(선조 21)부터 1683년(숙종 9)까지 옥산서원 유생들이 감영, 병영, 경주부와 여러 읍에 청원한 문서 46건을 필사하여 성책한 것이다. 내용은 노비(奴婢), 전답(田畓), 속점(屬店)·속사(屬寺) 등의 사급(賜給)과 면역(免役)·면세(免稅)에 관한 것으로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 기반 형성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승정2년 기사 원노비안 崇禎貳年 己巳 院奴婢案

▪년대: 1629년(인조 7) ▪크기: 20.8×20.7

임진왜란 이후 옥산서원에 소속된 노비의 규모를 알려주는 자료이며, 당시 옥산서원에는 총 58구(노 25구·비 33구)의 노비가 있었다. 노비명과 나이, 기타 질병·방매 등을 적고 있다.



입학기 立學記

▪년대: 1649년(인조 27) ▪크기: 36.0×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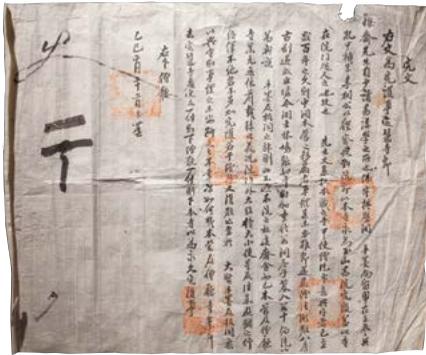
1649년(인조 27) 유생들의 입학과 교육활동을 기록한 장부로 유생 30명을 5명씩 6학(學)으로 나누어 이름을 기재하였다. 입학 후에는 거재활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5일간 기숙하며 송시(誦詩)와 독서(讀書)를 하도록 했다. 또한 강회 참석과 거재 태도를 평가하여 정도에 따라 벌을 주고 있다.



전교등서 傳教謄書

▪년대: 1676년(숙종 2), 1690년(숙종 16)
▪크기: 38.5×30.0

1676년(숙종 2) 숙종이 옥산서원 등 문묘에 종사된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의 모입자(募入者)들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하교 내용과 1690년(숙종 16) 원속(院屬)을 되돌려주라는 왕명을 등서한 것이다. 17세기 중반 서원에 모입자들이 늘어나자 국가가 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였는데, 옥산서원은 숙종의 전교를 근거로 특별히 제재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자료이다.



완문 完文

▪년대: 1785년(정조 9) ▪크기: 55×69

1785년(정조 9) 경상감사가 발급한 것으로 창건부터 옥산서원의 속사였던 정혜사(定慧寺)를 각종 수탈로부터 보호받도록 조치하고, 소속 승려들로 하여금 회재 이언적의 수목과 문집판목을 영구히 수호하게 하고 있다. 옥산서원은 이러한 관의 특혜를 통해 정혜사로부터 각종 물품의 조달과 승도들의 서원 내 사역 동원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호구단자 戶口單子

▪년대: 1762년(영조 38) ▪크기: 36×234

옥산서원 수노(首奴) 석노(石老)가 1762년(영조 38)에 작성한 호구단자로 서원 소속 노비 162구의 이름, 나이, 출생년, 거주지, 부모, 혼인관계 및 매득(買得), 도망(逃亡), 환현(還現) 등을 표기하였다. 노비들은 옥산리를 중심으로 한 경주부의 지역은 물론 영천, 밀양, 울산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18세기 후반 옥산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다.



천안신천 薦案新薦

▪년대: 1734년(영조 10) ▪크기: 36×100.5

1734년(영조 10) 옥산서원 유생으로 천거(薦舉)된 32명의 명단과 천주(薦主)를 기재한 문서로 천주는 현관·원임·원유(院儒)들로서 각자 2~15명의 유생을 춘추향사와 도회(道會)·당회(堂會)·향회(鄉會) 등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천거하였다. 천거 유생명단 아래에는 고강(考講)과 생원·진사시 입격(入格) 여부를 표기하고 있다.



전여기 傳與記

▪년대: 1746년(영조 22) ▪크기: 19.5×28.4

1746년(영조 22) 옥산서원 원임의 교체시에 작성한 인수인계 장부로 서책(書冊), 제복(祭服), 제기(祭器), 유기(鑿器), 철물(鐵物), 신물(新物), 포진(鋪陳), 목기(木器)와 각종 문서, 서책(書冊), 책판(冊版) 등의 목록들이 적혀 있다. 옥산서원에는 이밖에 간소(刊所), 서책(書冊) 전여기등 다양한 형태의 전여기 총 52책이 전해진다.



어제봉안시절목 御製奉安時節目

▪년대: 1794년(정조 18) ▪크기: 41.2×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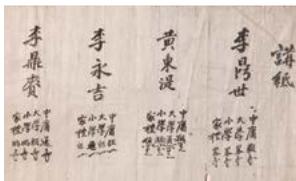
1794년(정조 18) 정조는 이언적이 저술한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에 친필로 서문을 쓰고 옥산서원에 보내어 소장하게 하였다. 이 절목은 이때 예관이 가져온 어제를 맞이하고 경각(經閣)에 봉안하는 절차를 적은 것으로 모든 원생(院生)이 갖추어야 할 복색(服色)과 의절(儀節)에 관한 내용이다.



강지 講紙

▪년대: 1802년(순조 2) ▪크기: 41.6×266

1802년(순조 2)과 1817년(순조 17)에 실시한 고강(考講)의 성적 기록부로 시험과목은 옹(中庸)·대학(大學)·소학(小學)·가례(家禮) 등으로 성적에 따라 통(通)·약(畧)·조(粗)·불(不)로 나누고 각 과목의 성적 아래에 채점자의 서업을 하고 있다.



고왕록 考往錄

▪년대: 1816~1873년 ▪크기: 35.4×37

19세기 옥산서원의 역사를 간략히 기록한 자료로 연월일 순으로 주요 서원 내방자와 기부 물품, 건물의 수리 및 중건, 향사, 향회(鄉會) 등을 기록하고 있다.





옥산서원강당중건시향중출물치부
玉山書院講堂重建時鄉中出物置簿

▪ 년대 : 1839년(헌종 5) ▪ 크기 : 35.3×23.4

1839년(헌종 5) 향회(鄉會)를 열어 옥산서원 강당 중건을 결의하고, 경주부 내의 향교, 서원, 사우 등과 54개 문중에게 소요 경비를 배전(排錢)한 장부이다. 본손(本孫)들의 경우 12등급으로 나눠 30냥에서 1전까지 거두고 있음이 주목된다.



복제개혁반대만인소 服制改革反對萬人疏

▪ 년대 : 1884년(고종 21) ▪ 크기 : 102×10,036

1884년(고종 21) 이재교(李在嶠)를 소수(疏首)로 8,849명이 서명한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이다. 이 상소는 12월에 발발한 갑신정변으로 복제개혁 자체가 취소되자 올리지 않았다. 완전한 형태로 현전하는 만인소로 귀중한 자료이다.



구인당중건일기 求仁堂重建日記

▪ 년대 : 1840년(헌종 6) ▪ 크기 : 36.0×26.6

1839년(헌종 5)~1840년(헌종 6)에 화재로 소실된 구인당을 중건하면서 일어난 일들과 과정을 기록한 일기로 이해상(李海祥)이 정리한 것이다. 강당 중건을 위한 논의와 건립의 과정을 기록한 강당중건일기(講堂重建日記)와, 재사액(再賜額)이 진행되면서 작성한 연액일기(延額日記)·치제일기(致祭日記)·계액일기(揭額日記), 그리고 낙성시의 낙성시일기(落成時日記)로 구성되어 있다.

| 책 및 책판 |



삼국사기 三國史記

▪년대: 1573년(선조 6) ▪크기: 29.2×21.5cm(50권 9책)

1970년 12월 30일 보물 제525호 지정된 이후 2018년 2월 22일 국보 제322-1호로 승격된 옥산서원 소장본 삼국사기는 1573년(선조 6)에 경주부에서 간행하여 옥산서원에 보내진 50권 9책의 완질이다. 삼국유사와 함께 경주부에 전해 오다가 1394년(태조 3) 마멸이 심한 판만을 고판(古板)에 의하여 번각(飜刻)하였고, 1512년(중종 7)에 간행한 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을 1573(선조 6)에 새로 보각(補刻)하여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대학혹문 續大學或問

▪년대: 1547~1553년 ▪크기: 32.5×23.6cm(1책)

이언적(李彦迪)이 남송(南宋)대 주희의 대학혹문(大學或問)을 추가 보완하여 저술한 것으로 옥산서원의 필사본 중 가장 중시되는 것이다. 정조 때 경연에서 강의 되었고, 권수에 '어제제선정속대학혹문권수(御製題先正續大學或問卷首)'라는 정조의 친필 머리글과 규장지보(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다.



동래선생십칠사상절 東萊先生十七史詳節

▪년대: 16세기 중반 ▪크기: 28×18

남송(南宋)대 여조겸(呂祖謙)이 편찬한 십칠사(十七史)로 조선 중종대에 본문은 갑진자, 서발문은 갑인자로 간행된 것인데, 국내에 인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



번역소학 翻譯小學

▪년대: 16세기 중반 ▪크기: 33.2×21.2

1518년(중종 13) 통문관의 계에 의하여 김전(金詮), 최숙생(崔淑生) 등이 왕명을 받아 소학을 알기 쉽게 번역한 것으로 을해자로 간행한 책을 다시 목판으로 번각하여 간행한 책이다. 소장본은 권3, 8, 10이 남아 있는 희귀서로 국내에 그 잔존본이 거의 없는 희귀본이다.



주자대전 朱子大全

▪년대: 1575년(선조 8) ▪크기: 34.2×21.8

원집(原集) 100권 87책, 속집(續集) 11권 4책, 별집(別集) 10권 4책으로 모두 121권 95책으로 구성된 방대한 책이다. 1543년(중종 38) 을해자로 처음 간행되었고 다시 1575년(선조 8)에 유희춘(柳希春)과 조헌(趙憲) 등이 교정을 보아 새롭게 중간본을 간행하였는데 옥산서원 소장본은 완질이다.



국조유선록 國朝儒先錄

▪년대: 1570년(선조 3) ▪크기: 33.2×21.3(4책)

김광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의 행적을 1570년(선조 3) 선조의 명으로 유희춘이 편찬한 것으로 5권 4책의 을해자 혼입보자본(乙亥字混入補字本)으로서 옥산서원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비아 埤雅

▪년대: 1538년(중종 33) ▪크기: 24.5×16.9(5책)

송나라 육전(陸佃, 1042~1102)이 지은 문자학 서적으로 물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에 그 간본이 드문데, 옥산서원 소장본은 조선초기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로 간행된 것이며, 1538년 당시 홍문관(弘文館) 응교(應敎)였던 이언적에게 내린 책이다.



회재선생집 책판 晦齋先生集 冊板

▪년대: 17세기 ▪크기: 23×36

회재 이언적(李彦迪)의 문집으로 1574년(선조 7) 초간된 이후 옥산서원에서 1600년(선조 33), 1624년(인조 2), 1631년(인조 9), 1641년(인조 19)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중간, 보간, 후쇄되었다.

옥산서원에 소장된 책판은 회재선생집(晦齋先生集) 163판, 회재선생집별집(晦齋先生集別集) 79판, 회재선생유묵(晦齋先生遺墨) 12판, 회재집(晦齋集) 72판이 남아있다.

| 현판 및 기문 |



옥산서원 玉山書院

▪년대: 1574년(선조 7) ▪크기: 83×240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서원 편액으로, '옥산'은 서원이 위치한 자옥산(紫玉山)의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1572년에 묘우를 건립하고, 1574년(선조 7)에 옥산서원으로 사액되었다. 글씨는 사액 당시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 1539~1609)가 썼으며, 현재 편액은 옛날의 것을 모각한 것이다.



옥산서원 玉山書院

▪년대: 1839년(헌종 5) ▪크기: 79×180

옥산서원의 강학공간인 구인당(求仁堂)이 화재로 소실된 이후 1839년(헌종 5)에 다시 받은 편액으로, 글씨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썼다. 현판 좌측에 1574년(선조 7) 사액을 받은 후 266년이 지난 1839년(헌종 5)에 불이 나 다시 써서 사액한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체인묘 體仁廟

▪년대: 16세기 ▪크기: 92×133

옥산서원 사우 편액으로, '체인'은 인(仁)을 체득한다는 뜻으로 유학의 핵심가치이자 이언적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다.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이 이름을 짓고 한호(韓濩, 1543~1605)가 글씨를 썼다. 현판 좌측에 노수신이 4연 4구 형식으로 '체인'의 의미를 기록해 둔 것이 특이하다.



옥산서원기 玉山書院記

▪ 연대 : 1573년(선조 4) ▪ 크기 : 44×130

허엽(許曄)이 이언적의 문인 권덕린(權德麟)의 부탁으로 지은 기문으로 무변루에 걸려 있다. 옥산서원이 경주유림들이 뜻을 모으고 경주부, 경상감영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었음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경주에서 국가에 필요한 인재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글이다.



구인당 求仁堂

▪ 연대 : 1839년(헌종 5) ▪ 크기 : 84×182

옥산서원 강당 편액으로, '구인'은『논어(論語)』 「술이(述而)」편에서 인용한 말로, 성현의 학문이 인(仁)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은 이언적 학문의 핵심 사상이기도 하다. 노수신이 명명하고 한호가 글씨를 썼다. 현판 좌측에 노수신이 4언 4구 형식으로 '구인'의 의미를 기록해 둔 것이 특이하다. 1839년(헌종 5) 강당 화재의 손상된 것을 다시 복각하였다.



백록동규 白鹿洞規

▪ 연대 : 1839년(헌종 5) ▪ 크기 : 62×150.5

옥산서원의 강당인 구인당 왼쪽 벽에 걸린 현판으로, 송나라 주자가 중국 강서성 여산에 있던 백록동서원의 학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만든 학규이다. 참된 군자로서 수행해야 할 오교지목(五教之目), 위학지서(爲學之書),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의 다섯 가지 내용이 적혀 있다. 1839년(헌종 5) 강당 화재의 손상된 것을 다시 복각하였다.



전교등서 傳敎謄書

▪ 년대 : 1839년(헌종 5) ▪ 크기 : 62×158

원래 1676년(숙종 2) 게판했던 것을 1839년(헌종 5)의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작성한 것이다. 당시 경연에서 서원 모입자들이 흩어져 선비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자 숙종이 문묘에 종향된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의 모입자에 대한 물침(勿侵)의 전교(傳敎)를 내렸는데 이 기문은 그 내용을 등서한 것이다.



서원서책불출원문 書院書冊不出院門

▪ 년대 : 1846년(헌종 6) ▪ 크기 : 86×138

어서각[경각(經閣)] 문 위에 걸어두었던 이 현판은 옥산서원의 도서관리 규범으로 “서책을 서원 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는 내용 등 이황이 처음 정한 규정과, 이로부터 300년 후 정조가 이에 대하여 내린 명령이 함께 쓰여 있다.



옥산정사 玉山精舍記

▪ 년대 : 1802년(순조 2) ▪ 크기 : 66.7×166

1802년(순조 2) 경상관찰사 남공철(南公轍)이 독락당을 찾았다가 후손의 청으로 지은 글이다. 이언적의 행적과 조정의 추존 사실, 그리고 그의 자취가 서린 옥산정사 일대의 자연경관에 대하여 적고 있다.



무변루 無邊樓

▪년대 : 1572년(선조 5) ▪크기 : 62×114

옥산서원 2층 누대 편액으로, ‘무변’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끝이 없네[풍월무변(風月無邊)]’라는 뜻으로 주돈이의 인품을 칭송한 말이다. 아울러 서원 주변의 산수경관이 한 점 티끌먼지 없는 청정한 경계를 가리킨 말이기도 하다. 본래 명칭은 ‘납청루(納淸樓)’였는데, 노수신이 ‘무변루’로 이름을 바꾸었고, 글씨는 한호가 썼다.



역락문 亦樂門

▪년대 : 1572년(선조 5) ▪크기 : 49×129

옥산서원 출입문 편액으로, ‘역락(亦樂)’은『논어(論語)』 「학이(學而)」 편에서 인용한 말로 뜻이 맞는 벗이 멀리서 찾아오면 기쁘다는 의미이다. 소재 노수신이 명명하고 석봉 한호가 글씨를 썼다. 현판 좌측에 노수신이 4언 4구 형식으로 ‘역락’의 의미를 기록해 둔 것이 특이하다.



세심대 洗心臺

옥산서원과 서원 앞을 흐르는 자계천 사이 너럭바위에 새겨진 각석으로, ‘세심(洗心)’은 계곡의 맑은 시냇물을 보면서 마음의 티끌을 깨끗이 씻으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세심대’는 이언적이 명명한 사산오대(四山五臺) 가운데 하나이며, 정조 때 이곳 주변에서 지방 초시(初試)를 개최하기도 했다. 글씨는 퇴계 이황이 썼다.

| 제향의례 |

제향 전 간식으로 야하(夜下)를 제공하는 옥산서원

경북 경주에 위치한 옥산서원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을 기리기 위하여 1572년(선조 5) 창건하였고, 1574년(선조 7) 사액을 받아 영남의 주목되는 서원이 되었다. 임진왜란의 병화에도 피해 없이 보존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옥산서원은 지역 지성들의 공론을 결집한 곳이면서 교육과 더불어 제향자 후손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었다.

옥산서원의 춘추 향사는 새벽 1시경에 시작되기 때문에, 향사에 들어가기 전에 허기지지 말라고 제관들에게 야하(夜下)라는 미음 간식을 제공한다. 이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기가 심할 때 나는 입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희생을 가자(架子)에 실어 운반할 때에 누각인 무변루와 강당, 사우까지 사다리를 설치해두고 중문을 통해 옮기는 것도 특이하다.

미음 간식, 야하(夜下)

옥산서원의 춘추 향사는 새벽 1시경에 시작되는데, 향사에 들어가기 전에 허기지지 말고, 또한 시장기가 심할 때 나는 입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제관들에게 야하(夜下)라는 미음 간식을 제공한다.

물을 뿌리고 희생을 문지르는 재유사(齋有司)

옥산서원에서는 역락문(亦樂門) 밖의 생단을 중심으로 헌관이 희생의 남북향으로 서면, 재유사가 시계방향으로 세바퀴 돌며 돼지의 상태를 살펴본 다음 꿏어 앉아 희생을 문지르고 헌관을 향하여 ‘돌(臍)’을 고하면 헌관은 ‘충(充)’으로 답한다.

사당 앞에서의 축문(祝文) 작성

옥산서원에서는 분정이 끝나면 대축이 사당 문을 열어둔 채 내삼문 밖에서 축문을 작성한다. 축문 작성이 끝나면 헌관에게 확인을 받고 축문을 조그만 축상에 받쳐 들고 사당 제상 아래 향탁 좌측에 둔다.

희생 옮기기

옥산서원에서는 다른 서원과 달리 누각과 강당, 사우 중문에 이르기까지 사다리를 설치해두고서 희생을 가자에 실어 옮긴다.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奠幣禮)

옥산서원에서는 대축이 채반 모양의 폐비에 폐백을 담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폐백만 들어 올린다. 다른 서원에서는 폐백이 든 폐비채로 올린다.